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0. 공안 생성의 기원

일상 용어 가운데 선불교 용어들이 무척 많다. 종교(宗敎) · 자유(自由) · 삼매(三昧) · 화두(話頭) · 본산(本山) · 무심(無心) · 점심(點心)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선불교에 기원을 두고 있는 선어(禪語) 가운데 90년대 들어 가장 대중화된 말은 '화두'다.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는 이 용어를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으뜸가는 화젯 거리'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선불교에서는 공안(公案)이라는 단어와 함께 선의 핵심적 성격을 상징한다.

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공안은 원래 '관청의 공문서(公府案牘)'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참선 수행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규범성과 판단의 준칙이 되는 핵심적인 명제를 의미한다. 〈벽암록〉에서는 "조사 스님들이 가르쳐 보이신 바를 공안이라고 한다(祖敎之書 爲之公案)"고 적고 있다. 공안의 종류는 보통 1,700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등록〉에 등장하는 1,701인의 선사들이 보여준 기연(機緣)과 언

'전등록'에 등장하는 선사들의 언행

행에서 유래된 것이다.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안은 몸과 마음으로 도를 배우는 신심학도(身心學道)의 열쇠다. 따라서 공안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참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선불교의 공안은 불교 경전 뿐만 아니라 중국 고전에도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공안은 고전의 다양한 소재들을 선불교의 독창적인 깨달음으로 재해석한다. 여기서 공안의 기원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보자.

운문의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는 공안은 '하루하루를 새롭게(日日新又日新)'라는 탕왕의 좌우명이었으며, 〈벽암록〉 제45칙에 실린 조주의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는, '만물과 만형은 그 하나로 돌아간다. 그 어느 것도 하나를 말미암아 무에 돌아가나니 무는 하나를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하나는 가히 무라고 한다(萬物萬形 其歸一也 何由致一由于無也 由無乃一 一可謂無)'는 〈노자왕필주〉의 제42장 주의 새로운 각색이다. 또한 임제의 '차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이라는 공안은 〈장자〉에서 수없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고불미생전(古佛未生前) 역시 〈시경〉 제90장 '그대가 아직 대지와 세계를 만들지 않았을 때'의 불교적 표현이며, 운문의 '똥 치우는 막대기(乾屎橛)'는 〈장자〉 지북유(知北遊)에 실린 동곽자와 장자의 대화이다. 또한 남전보원의 화두, '병 속의 새 꺼내기'는 〈불설칠현여경(佛說七賢女經)〉의 압축이다. 이 경에서는 "새가 병 가운데 들어 뚜껑을 닫아놓았을 때는 새와 병이 둘이 아니라서 새가 능히 날아가지 못하였는데 이제 병이 깨지니 새가 날아간다"고 설한다.

이 사례는 공안의 기원에 관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안의 기원이 불교 경전과 중국 고전에 있다고 해서 공안의 가치가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공안의 참구는 선이 지향하는 깨달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깨달음의 내용은 아니다. 깨달음의 내용은 지혜와 자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공안에서 의단을 일으켜 화두를 참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공안 그 자체를 선의 본질인양 집착하는 경우 선을 신비주의로 전락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안이 무심과 견성을 목표로 삼는 참선수행의 대명제라면 화두는 그 대명제속의 핵심, 공안이 참선자의 신심(身心)과 하나가 되어 깨닫도록 이끄는 절대적인 의문이며 이를 의단(疑團 : 의문덩어리)이라고 한다. 이처럼 의문덩어리가 된 화두를 전심전력으로 참구해서 마침내 타파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화두의 타파를 통해 부처님이나 조사들과 다름없는 성품을 깨달아야만 역량을 가진 한 사람의 선승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선승들이 이와 같은 화두야말로 부처님과 조사의 안목이며,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좌선에 전념하는 것을 화두를 든다고 한다.

단지 선문답으로 이루어진 옛 선사들이 남긴 공안의 언저리를 오고가며 알음알이로 헤아리는 지해선(知解禪)이나 깨닫기를 기다리는 대오선(待悟禪)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 문제는 진정한 의단으로 공안의 의미에 집착하지 않고 선의 원점, 특히 실천적 원점에 서서 만법의 진리, 불성 그 자체를 우리의 참다운 화두로 참구하는 것이다.

▩ 경학회 회주

과거생의 악업 다스려 병 치유

참불자의 길 구병시식(救病施食)



그림 · 최정근

사찰의 하루는 의식으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난다. 새벽예불에서부터 사시불공, 저녁 예불 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들이 행해진다. 이러한 날마다의 의식말고도, 천도재나 구병시식과 같은 의식도 인연따라 열린다. 그 중 구병시식(救病施食)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하여, 환자의 전생 인연을 비롯해 조상영가와 그밖에 관련 있는 모든 인연을 해탈시킴으로서 환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의식이다. 다른 말로 구명시식(救命施食)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구병시식이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산자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불가에서는 사람의 병을 크게 현세실조병(現世失調病)과 선세행업병(先世行業病)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현세실조병은 음식이나 몸가짐 따위를 고르게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44가지 병을 말하고, 선세행업병은 과거 생에 저지른 온갖 악업의 과보로서 나타나는 병이다. 구병시식은 선세행업병을 치유하는 의식이다. 사람이 타인을 괴롭히거나 몹시 미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그 업의 힘이 내재돼 있다가 현세에 이르러 자신의 몸에 병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 육체적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의술로서 다스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고 참회함과 더불어 주변의 모든 원한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런 까닭에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병고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구병시식을 행한다.

구병시식은 육체와 정신이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구병시식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기도 하는데, 이는 불교의 연기사상을 현실 속에서 체현하는 일이라 하겠다.

구병시식의 의식은 먼저 불법승 삼보를 청하고, 전생 인연 영가들을 부르고, 원한을 푸는 진언과 악한 것을 멸하게 하는 진언, 널리 공양을 올리는 진언을 염하고, 백생의

연기사상서 연유
영가 원한 풀어줘
병자 몸서 떠나게

원수를 푸는 다라니를 108번 지송하여 영가의 맺힌 원한을 풀도록 한 뒤 장엄염불로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을 물리치는 의미로 붉은 팥을 병자의 몸에 던져 영가가 환자의 몸을 떠나 정토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로 된다.

〈세종실록〉에는 왕실에서 구병시식과 구병정근을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32년(1450년)에는 정월에 왕이 병환으로 인해 효녕대군의 집으로 옮겨가고 몇 번의 법회를 행하던 중 소윤 정효강을 용문산 상원사에 보내어 구병수륙재를 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구병시식은 지금도 각 사찰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방송에서 이 구병시식을 단순히 귀신 쫓는 방법으로만 알고 흥미위주로만 보도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따라서 불자들은 구병시식과 같은 방법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은자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㊲

유시랑(劉侍郎)에 대한 답서

번뇌 벗어나려면 번뇌 속으로 들어가라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선지식(善知識)에게 묻기를, '세계(世界)가 이렇게 뜨거우니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고 하니, 그 선지식이 말하기를,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다시 묻기를, '이렇게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불타는 화로 속에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지식이 말하기를, '모든 고통이 다다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거사(居士)께서는 하루 하루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여서 저 선지식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곧 제가 효과를 본 약방문(藥方文)입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세속에서 매일 매일 번뇌를 맛보며 살아가고, 그 삶이 다시 업을 낳고 업은 다시 세속에서 번뇌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만, 오랜 동안 수행을 닦은 보살이나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세속을 벗어난 곳에서 번뇌가 없는 즐겁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 중생이 사는 세상은 욕계 · 색계 · 무색계의 세 가지 세계와 여섯 갈래 윤회의 길이지만, 깨달음을 얻어 해탈한 부처는 이 모든 곳을 벗어난다고도 말한다. 그리하여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고, 범부와 성인을 나누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나누고, 속박과 해탈을 나누고, 번뇌와 열반을 나누어서는, 이쪽을 버리고 저쪽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서, 한 쪽은 좋고 한 쪽은 나쁘고, 한 쪽은 좋아하고 한 쪽은 싫어하여, 한 쪽은 취하고 한 쪽은 버리려고 한다면, 영원히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것은 늘 상대적이므로, 어느 한 쪽은 버리고 다른 쪽만 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버리면 모두를 다 버리든지 취하면 모두를 다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대법(相對法)의 속성이다. 세간 없는 출세간이 있을 수가 없으며, 범부 없는 성인이 있을 수가 없으며, 어리석음 없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으며, 속박 없는 해탈이 있을 수가 없으며, 번뇌 없는 열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사리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상대법의 속성을 무시하고 분별하여 한 쪽은 취하고 다른 쪽은 버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요컨대 이것은 공(空)이 곧 색(色)이고, 색이 곧 공으로서 공과 색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반야심경〉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다.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듯이, 진실로 법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면, 세간이 곧 출세간이며, 범부가 곧 성인이며, 어리석음이 곧 지혜이며, 속박이 곧 해탈이며, 번뇌가 곧 열반이다. 그러므로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고,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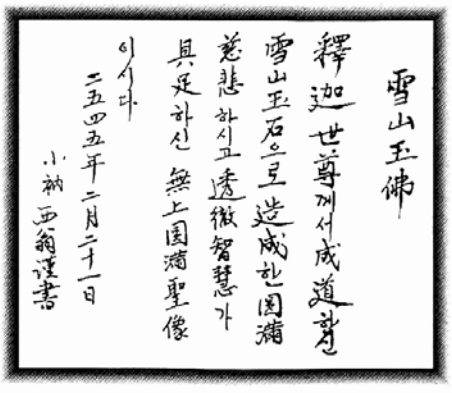
이러한 여러 가지 상대법들은 다만 마음의 분별작용으로 의식 위에 나타나는 모습[相]들일 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세간이라는 의식이 있고 출세간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으로는 이들이 판이하게 다르게 경험되지만, 의식을 나타내는 작용은 하나의 마음이 하는 작용이다. 하나의 마음이 이런 모양의 의식도 나타내고 저런 모양의 의식도 나타내는 것이다. 마치 동일한 물이 여러 가지 물결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물결만 보면 서로 다양하게 다르지만 그러한 물결들은 모두가 동일한 물의 움직임일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험으로 나타나는 의식만 보면 번뇌가 있고 해탈이 있으며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지만, 그 번뇌와 해탈, 중생과 부처는 사실 동일한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허망한 의식현상일 뿐이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번뇌와 해탈이 다르지 않고, 세간과 출세간이 다르지 않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뜨거운 번뇌를 피하는 길은 번뇌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만들어내고 번뇌를 번뇌로 인식하는 그것을 파악하기만 하면, 번뇌는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하심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圖滿
慈悲하시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二月二十一日
小林西翁謹書

■ 주천서


■ 고불증림방장 석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부산 051)637-2333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buddha.co.kr